

언어·교육·문화 토론문

「한·중·일 불교 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공유 가능성 - 『송고승전』·『화엄종조사회전』·『삼국유사』의 의상과 선묘』에 대하여

조우친친(周勤勤) / 중국사회과학원대학

전남대학교 김용의 교수는 『송고승전(宋高僧傳)』,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된 의상과 선묘에 관한 이야기 비교를 통해 한·중·일 불교 문화유산의 공유 가능성을 탐색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이 논문은 내용이 자세하고 정확하며 꼼꼼한 분석력까지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가 결합되어 창의적이고 모범적 의의가 있으며 동아시아 공동문화유산의 발굴, 소개 및 전파를 실천함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김용의 교수는 ‘한·중·일 불교 문화유산의 공유’라는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매우 전형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김용의 교수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전해질뿐만 아니라 『송고승전』, 『화엄종조사회전』, 『삼국유사』에 모두 기록된 해동화엄초조(海東華嚴初祖) 의상과 선묘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연구한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에는 신라시대의 승려 의상과 그를 사모한 중국 여성 선묘에 관한 이야기가 설화 및 그림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 한·중·일이라는 국가 및 지역 경계를 뛰어넘어,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교류 특히 그중에서도 불교문화의 전파 및 수용과정, 동아시아 해양 문화교류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세히 논하자면, 중국 북송 시대 찬녕(贊寧)이 988년에 편찬한 『송고승전』 <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湘傳)>에 의상과 선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신라국 승려였던 의상은 원효(元曉)와 함께 불법을 구하러 당나라로 가던 도중에 원효는 스스로 깨닫고 유학을 단념합니다. 혼자 남은 의상은 귀국하는 당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했고, 중국에 도착한 후에 의상은 선묘를 만나 유혹을 받았으나 이를 뿌리쳤습니다. 당나라 유학 시절, 의상은 종남산(終南山) 지장사의 지엄삼장(智嚴三藏) 문하에서 화엄경을 배웠고, 불교 유학을 마친 의상이 귀국하여 불법을 전하려고 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선묘는 용으로 변신하여 의상이 탄 배를 수호해줬습니다. 의상을 쫓아서 신라국으로 간 선묘는 의상의 포교(布教)를 도와 공중에 큰 바위가 떠 있게 했다고 합니다. 선묘의 기대와 도움을 저버리지 않고 의상은 해동화엄초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고잔지(高山寺)에 전해지는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은 그림과 문장의 형식으로 화엄종 조사 의상과 원효의 전기를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은 묘에 상인(明惠上人)이 가마쿠라(鎌倉)시대 초기에 『송고승전』 기록에 근거하여 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신라국의상전>과 비교했을 때, <의상회(義湘繪)>는 의상과 선묘의 ‘사랑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초에 편찬된 『삼국유사』에는 『송고승전』이나 『화엄종조사회전』에 등장하는 선묘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의 교수는 『삼국유사』의 편자인 일연이 『삼국유사』의 의상에 관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당신라국의상전>을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했고, 일연이 의도적으로 선묘에 관한 부분을 결락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의상과 선묘의 ‘사랑 이야기’를 극대화하고 있는 『화엄종조사회전』의 <의상회>와는 매우 대조적인 부분인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종합해보면, 한·중·일 3국에서 기록한 의상과 선묘에 관한 이야기는 공통된 내용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한·중·일 3국 불교문화의 공통성(共通性) 및 서로 다른 민족적 특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특수성을 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흥미로웠던 점은 <의상전>에 기록된 중국 여인 선묘의 신비롭고 기이한 행적으로 인해 선묘가 한국과 일본에서 신격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묘에 상인에 의해서 교토 히라오카(平岡)에 선묘의 이름을 붙인 선묘사(善妙寺)가 창건되고 선묘사에 선묘 신상(神像)을 제작하여 안치하기에 이릅니다. 또 다른 일례로, 한국은 경상북도 영주(榮州)에 위치한 부석사(浮石寺)의 무량수전(無量壽殿) 오른쪽 뒤에 세워진 선묘각(善妙閣)에 선묘의 화상을 안치하여 신격화했습니다. 김용의 교수는 이 독특한 현상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한·중·일 3국이 불교 문화유산에서 가지는 내적 공통성(共通性)과 친밀성(親密性)을 보여주었고, 한·중·일 3국이 함께 불교 문화유산을 진일보 발굴하는 데 있어 방향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본고의 맨 마지막에 김용의 교수는 의상과 선묘의 이야기 이외에도, 동아시아에는 공유가 가능한 불교 문화유산이 무수히 많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용의 교수가 본고에서 관련 사례에 대한 논리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매우 유익한 탐색의 과정이었고, 동아시아 공동 문화유산에 대한 동아시아 학계의 조사와 발굴 작업에 있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